

비만 및 신체질량지수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의 연관성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허주연, 김태호, 한석원, 김재광, 김창환, 박종원, 김보경, 정한희, 차혁환

서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축성 위염, 소화성 궤양, 위암 및 위림프종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한 제균 치료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헬리코박터 표준적 일차 제균 요법시 감량된 용량으로도 제균 효과가 나타나는데 대한 연구등, 제균요법 용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임상에서 새로운 용량을 어떤 대상에게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본 논문은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제균 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헬리코박터 감염이 진단된 총 16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예에서 표준용량 3제요법으로 치료하였으며, 제균 요법 후 제균 치료 결과를 확인하였다. 제균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대상군의 연령, 성별, 체중, 키, 체표면적, 신체질량지수, 제균 치료 적응증 및 기저질환(당뇨, 고혈압)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저체중(18.5미만), 과체중(23이상), 비만(25이상), 고도비만(30이상)으로 분류하여 이와 제균 치료 결과에 대한 연관성도 확인하였다. **결과:** 총 166명의 환자 중 제균 치료에 성공한 군은 117명, 실패한 군은 49명이였다. 제균 치료 성공한 군의 평균 나이는 52.6세, 실패한 군은 54.3세였으며, 남성은 108명, 여성은 58명이였다. 평균 약제 사용기간은 두 군이 각각 7.0일 및 7.1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제균 치료를 성공한 군과 실패한 군의 평균 신체질량지수는 각각 23.5 및 24.7로($p=0.028$), 제균 치료 실패군에서 신체질량지수가 높았다. 전체 대상군 중 신체질량지수 25가 넘는 비만인 대상군은 50명 (30.1%), 비만이 아닌 군은 116명 (69.9%)로 각각 제균 치료 성공률은 56.0, 76.7%를 보였다($p=0.007$). **결론:** 제균 치료의 성공한 군과 실패한 군의 신체질량지수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실패한 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비만인 군이 비만이 아닌 군에 비해 제균 성공률이 현저히 낮아 임상에서 제균 치료시 비만 환자에게 대한 제균 용량 조절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단어:** 헬리코박터 감염;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신체질량지수; 비만

5-ASA-induced pancytopenia after recovery of azathioprine-induced pancytopenia in a patient with UC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eju, Korea

*Ji Hyun Kim, Hyun Joo Song, Sanghoon Han, Hwa Young Lee, Suhyun Oh, Tae Hoon Kim

Introduction: 5-aminosalicylic acid (5-ASA) is a commonly used drug for the treatment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but has a wide range of adverse effects. Though common side effects of 5-ASA include hematological (20%), gastrointestinal (16%) and dermatological symptoms (14%), pancytopenia caused by 5-ASA was rarely reported compared with azathioprine. **Case:** description: A 57-year-old woman was admitted to the hospital due to petechia of the neck and alopecia. She had been treated with mesalazine (Asacoli) for 13 months due to left-sided ulcerative colitis. Forty-five days earlier, she had recovered from a 2-week incident of pancytopenia due to azathioprine. She had taken a 40 day oral course of azathioprine at 50 mg. A complete blood count showed leukopenia ($1,500/\text{mm}^3$), with absolute neutrophil count $520/\text{mm}^3$. Hemoglobin was 9.5 g/dL with hematocrit (27.0%) and platelet count at $9,000/\text{mm}^3$. Other laboratory data, including liver and renal function as well as serology for virus infection, were normal. After withdrawal of mesalazine, pancytopenia continued over 2 months. She received platelet transfusion and recombinant human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She very slowly recovered over 80 days with absolute neutrophil count fluctuation. Careful clinical and hematological monitoring is required after recovery of azathioprine-induced pancytopenia, when previous use of mesalazine is resumed. We report a case of long-lasting pancytopenia in a 57-year-old woman with ulcerative colitis who was treated with mesalazine after recovery of azathioprine-induced pancytopenia. **Keywords:** Pancytopenia; 5-ASA; Ulcerative colitis